



4·3 재판서 ‘사상 검증’ 나선 제주검찰

검찰, 68명 중 4명 희생자 결정 과정 의문 제기 재판부는 우려... “사상 검증의 누명 쓸 수도” 오는 26일 4·3중앙위원 증인 출석 기준 등 청취

제주4·3 희생자 재심을 다루는 법정에서 ‘사상 검증의 장’으로 변질됐다. 검찰이 국무총리 산하 제주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4·3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의 심판기

일을 진행했다.

4·3 재심 재판의 경우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심판기일은 검찰에서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68명 중 4명(모두 군사재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의 근

거로 “과과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현재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서 4·3중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희생자 여부를 결정하는지 들여다 보겠다.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 기관인 4·3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즉 검찰과

법원은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라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 결정 과정과 기준 등을 청취하자고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종민 위원은 4·3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사실조사에 나선 인물이다. 김 위원을 법정으로 불러 희생자 결정 기준은 물론 희생자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몇 건인지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도 제시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횡단보도 일시정지”... 경찰, 집중계도 어제 도내 주요 스킵존·도로에서 캠페인 전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경비교 통과 안전계)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2일 신제주초와 동광초, 한라초,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향후 제주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다. 이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12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불이 난 한림 선적 근해채취기 어선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한림항 화재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발견 12일 인양 과정에서 확인... DNA 검사 착수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에서 실종된 2명 중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한림항에서 근해채취기어선 A(29t)호에 대한 인양 작업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이 시신이 A호에서 실종된 선원 2명 중 1명인 것으로 보고, DNA 검사를 통한 신원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이날 A호에 대한 인양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훼손이 심한 데다 인양 중 추가 파손 우려까지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울어진 상태로 있는 A호를 그대로 들어 올릴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서 실종자 가족 DNA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신원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A호에 대한 선내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선체 훼손이 심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수색을 완료하지 못하면 14일 합동 감식에서 추가로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9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서 30명 ‘무죄’

지난 3월 시작으로 무죄 선고 인원 200명 넘어 “4·3 때 몰살”... 13명 제사 모시는 70대 증언도

제주4·3 근법회의(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원이 200명을 넘어섰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220명이 억울함을 품고 있다.

앞서 열린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30명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내란죄 혹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경에 체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이다.

모두 행방불명 혹은 사망해 유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사재판으로 아버지를 잃은 강경우(74)씨가 증언에 나섰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아버지가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됐다”며 “이후 육촌까지 모인 제사에서 군경이 집에 불까지 지르면서 일가친척을 모두 잃었다. 나는 14

살부터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현재 아버지를 비롯해 일가친척 13명의 제사를 홀로 모시고 있다”며 “이제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인 진용선씨는 “큰 아버지가 결혼한지 3일 만에 잡혀가 희생됐고, 그 충격으로 큰어머니도 곧장 세상을 떠났다”며 “공교롭게도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음력 9월 9일인데, 큰아버지 생일과 같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날을 정확히 모르니 같은 날 두 분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에 나선 장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10시간 새 제주서 2.0규모 지진 5차례

제주에서 규모 2.0대 지진이 다섯 차례나 연이어 발생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41분쯤 서귀포시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10시33분 서귀포시 동쪽 103km 해역에서 규모 2.2 > 오전 9시56분 서귀포시 동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2.3 > 오전 10시9분 서귀포시 동쪽 104km 해역에서 규모 2.7 > 오전 10시38분 서귀포시

동쪽 103km 해역에서 규모 2.6 등 총 다섯 차례의 지진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단층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향후 지진 발생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서 연동 신광사거리서 택시-버스 충돌 10명 중·경상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 A씨와 60대 여성 승객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버스 승객 8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의식이 없고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주공항 방면에서 신광사거리로 진입하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당함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능률보급품종(1.3년생)

-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0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번길1(수산리735)